

1/31/21

설교 제목: 요셉에게 임한 꿈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37 장 1-36 절

- (창 37: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 (창 37: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 (창 37: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 (창 37: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 (창 37: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 (창 37: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는 꿈을 들으시오
- (창 37: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절관주** 창 42:6, 창 44:14
- (창 37: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 (창 37: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절관주** 창 46:29
- (창 37:10)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꾸는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 (창 37: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절관주** 눅 2:19
- (창 37:12)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 (창 37: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 (창 37:14)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 (창 37:15)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 (창 37:16)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 (창 37:17)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 (창 37: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 (창 37: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 (창 37: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 (창 37: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 (창 37: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 (창 37: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 (창 37: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절관주** 렘 38:6
- (창 37: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 (창 37: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 (창 37: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 (창 37: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절관주** 렘 38:13
- (창 37:29)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창 37:30)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창 37: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절관주 창 37:3
 (창 37:32)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창 37:33)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창 37: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창 37:35)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창 37:36)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에서의 족보에 이어 본문은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36 장 한 장으로 간략히 마친 반면 야곱의 족보는 37 장부터 창세기 끝 50 장까지 계속합니다.

(창 37: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창 37: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런데 야곱의 족보가 이상하게도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의 족보에 온통 요셉의 이야기 뿐일까요?

요셉이 자식들 중에 가장 출세를 한 인물이라서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의 세상적인 성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 보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족보에 요셉의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흘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야곱을 장자 에서로 착각한 이삭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창 27: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창 27: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창 27: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 27: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하고 또 네 어미의 아들이 그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제가 형 에서 하나 뿐인데 이삭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곱을 에서라고 생각했더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은 이 축복이 야곱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창 37: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 꿈을 들으시오

(창 37: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신이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입니다.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창 37: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자신이 열 한 형제들 뿐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주가 되는 꿈입니다.

요셉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창 37: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 37:10)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창 37: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과 달리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야단치면서도 그 꿈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마음 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중히 지켜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고자질과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이미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창 37: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창 37: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창 37: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아들들 중 요셉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으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지금은 자신 곁에 없는 아내 라헬이 남긴 첫 아들입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달리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기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를 장자로 여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차에 이번에는 요상한 꿈이야기까지 하니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그를 죽일려고 모의를 합니다.

(창 37: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창 37: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 37: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나 장남 르우벤이 말리며 형제의 피를 직접 흘리지 말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 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창 37:21)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창 37: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을 좋게 여겨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 버렸습니다.

(창 37: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창 37: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때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고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창 37: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창 37: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창 37: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결국 그들은 은 20 개를 받고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창 37: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 개는 당시의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후에 르우벤이 요셉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보아 요셉을 팔 때 장남 르우벤은 거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 37:29)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창 37:30)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여튼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꿈 이야기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요셉을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버린 형제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보이도록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보입니다.

(창 37: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창 37:32)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창 37:33)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창 37: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창 37:35)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힌 것으로 생각하고 애통해 하였습니다.

한편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창 37:36)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자신이 세상에서 높아져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과 달리 오랜 시간을 고난과 고통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의 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이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 50: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창 50: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나중에서야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하여 은 20 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형제인 유대인 제자 가롯 유다에 의하여 은 30 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을 살린 것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부를 쌓고 권력을 잡아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나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 2: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아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